


1997학년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칼뱅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100042307 1998-03-02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김 성 택

칼뱅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thical
Thought by John Calvin

199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김 성 태

칼뱅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 문현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1997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김 성 택

김성택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u>전 정 태</u>	(인)
심사위원	<u>오 수 열</u>	(인)
심사위원	<u>문 현 상</u>	(인)

1997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칼뱅의 생애와 윤리의 위치	5
1. 칼뱅의 생애	5
2. 칼뱅의 윤리의 위치	10
III. 칼뱅의 정치 윤리	14
1. 정치 윤리의 역사적 배경	14
2. 통치자의 책임과 의무	17
3. 피통치자의 의무	19

IV. 칼뱅의 경제 윤리	23
1. 칼뱅의 경제 윤리관	23
2. 빈부에 대한 일반적 견해	25
(1)부의 개념	25
(2)빈곤의 개념	29
3. 칼뱅의 빈부론	31
(1)칼뱅의 빈부관	32
(2)칼뱅의 분배관	34
(3)칼뱅의 돈에 관한 견해	35
V. 칼뱅의 사회 윤리	38
1. 칼뱅의 휴머니즘	38
2. 청교도 정신과 현실	41
3.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44

VI. 칼뱅의 종교(기독교) 윤리	48
1. 인간의 타락	48
2. 칭의와 성화	50
(1)칭의	51
(2)성화	52
(3)칭의와 성화의 관계	53
3. 그리스도인의 자유	54
4. 그리스도인의 생활	56
(1)제자의 도(道)	57
(2)십자가의 도(道)	60
(3)경건의 도(道)	63
VII. 결 론	67
<참고문헌>	71
ABSTRACT	75

국문초록

칼뱅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

김 성 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 전공

지도교수 : 문현상

오늘날 현대 산업 사회는 여러가지 도덕적 병폐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급변함으로서 가치관의 혼란과 더불어 윤리의식의 결여, 사회규범의 퇴행,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폭력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등,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안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인간의 가치상실을 야기한 문화환경과 윤리적 사상의 결여 및 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인간됨의 삶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윤리도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윤리사상이 인간삶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크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칼뱅의 윤리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종교(기독교)로 구분하여 현대적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신학자요, 신앙가인 칼뱅의 윤리사상을 연구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퇴보해가는 윤리의식을 다시 고취시키며, 역사속에서 신앙윤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사명을 추구하고자 했다.

칼뱅의 윤리는 그 당시 종교개혁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원리와 윤리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칼뱅의 신학과 윤리는 성서중심이고, 하나님중심이다. 그의 학문적 노력은 세계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고자 했다. 즉 현대인의 실존적인 문제에 가장 이상적인 답을 주고 인간의 아름다운 삶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하나님 앞에서 인간존재를 간파하고 윤리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칼뱅의 모든학문에서는 신앙적인 인간상, 즉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찬 인간애를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정치윤리에는 神政政治의 사상이 들어있으며, 그의 경제관은 자본주의 사상의 시초가 되었으며, 또한 그는 정의와 사랑을 결부시켜 경제윤리를 논하고 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철학을 주장한다. 칼뱅은 성서를 중심한 그의 인간애로 유토피아적인 사회윤리를 주장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평등의 실천으로 이웃사랑을 주장한다. 그의 청교도 정신은 사회윤리의 근본이 되었다. 오늘날 청교도 정신을 낳은 구시대의 윤리로 여기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은 세계 역사속에서 큰 힘이 되었고 윤리적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칼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윤리이다. 그리스도인의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영적생활, 사회생활, 제자됨의 삶 등이 모든 것들은 神중심의 윤리라 할 수 있다. 신 중심의 윤리를 통해서 그의 윤리관이 정립되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윤리란 사람과 사람이 도덕적으로 관계되는 사회적 규범이며 또는 인간이 사회 관계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리이다. 윤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당위적 규범 뿐만 아니라 원활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의미의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이 윤리적인 생활을 하므로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고 가치관의 상실과 윤리의식 결여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생관의 혼돈과, 전통사회의 윤리관이 사라지고 물질주의, 범죄, 자아상실 등으로 현대사회는 비인간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이기주의적 풍조와 향락주의, 생명경시 풍조는 인간소외 현상을 초래하고 인간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성에 의한 판단보다 감성에 의한 행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앙노선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칼뱅의 윤리사상을 이해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조명함으로써 칼뱅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윤리를 연구하고자 한다. 칼뱅의 윤리는 종교개혁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원리와 윤리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칼뱅의 윤리를 이해하려면 칼뱅신학을 알아야 한다. 즉 칼뱅신학의 형성 속에서 칼뱅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칼뱅의 교리안에는 형식구성의 세가지 본질적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는 합리주의이다. 그의 합리주의는 내용에 있어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합리주의를 말한다. 둘째는 ‘대립되는 것의 복합’(Complexio Oppositorum)이다. 즉 교리가 비록 형이상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서로 대립 될지라도 형식상의 변증법에 의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본질적 성격으로서 바우케는 성서주의를 발견한다. 즉 근본적으로 교의학이 성서의 자료를 설명해야 한다는 원리이다.¹⁾

칼뱅의 교리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의 신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그의 윤리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 그의 학문을 윤리적 측면에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칼뱅은 학문적 노력으로 세계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고자 했다. 즉 현대인의 실존적인 문제에 가장 이상적인 답을 주고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성서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며,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 할 수 있는 칼뱅의 윤리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 발전을 통합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사회변혁과 모든 분야의 발달로 타락해 가고 퇴보하고 이기주의로 물든 현대인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며, 또한 역사속에서 기독교인의 윤리적 사명을 일깨워 주는데 있다. 그리고 윤리적 인간으로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행동을 확립하는데

1)W. Niesel. 「칼뱅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p.10.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칼뱅의 윤리는 그가 지은 신앙과 신학의 총 집약서인 「기독교 강요」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제3권 제6장에서 부터 제10장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항목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윤리관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강요」을 잘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에 있어서 칼뱅의 학문적 의의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즉 칼뱅의 윤리를 정치, 경제, 사회, 종교라는 네 분야로 나누어서 각 항목의 제목에 맞는 칼뱅의 윤리관을 살펴면서 또한 이 네 부분을 상호비교하는 연구방법을 택했다. 또한 칼뱅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칼뱅의 윤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칼뱅의 윤리관을 다루면서 그의 많은 신학적 용어를 사용했으며 신학적 교리 부분이 첨가 되었다.

먼저 칼뱅의 생애와 윤리적 위치의 제2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즉 하나님의 명령앞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칼뱅의 인간관 그의 휴머니스트의 윤리적 위치를 살펴 보겠다. 이 부분에는 그의 사상과 학문적 신앙적 기반을 세운 공부와 사회활동의 모습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했다.

제3장에서 칼뱅의 정치윤리사상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정치윤리의 역사적 배경, 통치자의 책임, 피통치자의 의무와 권리를 그의 신학사상과 연관하여 정치적인 합리적 행위를 설명하였다. 그의 정치 윤리는 곧 신정정치의 윤리이다. 모든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경제의 윤리를 살펴 보고자 한다. 칼뱅의 경제관, 빈부론의 일반적 견해, 칼뱅의 빈부론을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던 칼뱅의 빈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했다. 칼뱅의 경제관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초가 되었으며, 빈부의 개념을 정의와 사랑에 결부시키고 있다.

제5장은 칼뱅의 사회윤리를 다루겠다. 혁명적 휴머니즘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청교도 정신과 현실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칼뱅의 사회윤리의 근본은 성서이다. 성서를 중심한 그의 인간애로 유토피아적인 사회윤리를 주장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사회적으로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주장한다. 그의 사회윤리는 청교도 정신의 근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또한 그 청교도 정신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현대적 과정의 모습을 살펴 보겠다.

제6장은 칼뱅의 윤리에서 중요한 기독교윤리를 다루고자 한다.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인의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칼뱅의 신학적, 교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쯤인가? 칭의와 성화의 개념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자기부정적이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고찰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사회생활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요약과 미진한 부분을 보충함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지었다. 칼뱅은 세계적으로 사상가요 개혁가요 신학자요 목회자다. 그의 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원리다. 칼뱅윤리는 곧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²⁾

기독교 강요를 인용 할 때는 권, 장, 항순으로 기록하려고 한다.

2)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의 역, 「기독교 강요」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0), P,III.7.2.

II. 칼뱅의 생애와 윤리의 위치

1. 칼뱅의 생애

칼뱅은 기독교 역사상 신학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프랑스의 신학가요, 교회 정치가로서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지도자였다.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파리 동북부의 60마일 지점에 위치한 피가르디 지방의 리용(Royon)에서 제라르 코뱅과 여관업자의 딸인 잔느 르프랑 사이에서 태어났다.¹⁾ 칼뱅은 본래 장코반(Tean cauvin)으로 불리었다. 후에 그를 Calvin으로 부르게 된 연유는 그의 본명인 Tean cauvin을 나전어화하여 Johannes calvinus라 썼고 나중에 다시 고쳐 Calvin이라고 썼다.²⁾

그의 아버지는 주교 비서로서 주교 관청을 위해 일했고, 대성당 참사회의 대리인이었다. 칼뱅은 세상에 태어나자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품에 안기었다. 칼뱅의 아버지가 주교 관청에서 일했기에 칼뱅은 주교 친척인 드양제 집안의 귀공자들과 함께 교육받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기초교육을 마친 후 1523년에 파리로 갔다.

칼뱅은 14세 정도에 파리 대학 소속의 마르쉬 문과 대학(la college de la marche)에서 문과 계통을 배웠다. 당시의 유럽의 대학들은 문과 대학을 거쳐야 신학부, 의학부 그리고 법학부로 진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

1)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서울:기독교문사, 1984), pp.1104-1108.

2)논자는 본 논문에 Calvin(칼뱅)으로 부르기로 한다

서 칼뱅은 문과 대학 학위를 위한 예비 과정을 이수하였다. 즉 그는 라틴어 문법과 라틴어 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도 어느정도 배웠다. 특히 꼬르디엘(m. cordier)은 칼뱅에게 라틴어와 불어를 가르쳐 주었다. 아마도 칼뱅은 이미 이 과정에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맛보기 시작했을 것이다.³⁾ 1526년에 신학연구를 위하여 보다 유명한 몽테규 대학으로 갔다. 이 대학은 1521년 sorbonne 대학으로 하여금 루터 주의를 반대하던 베다(npel beda)와 땡페트(pierre tempete)에게서 토론 기술을 배웠고⁴⁾, 둔스 스코투스(dums scotus), 옥감(willi an of ockham), 비엘(gabriel biel) 등 후기 중세기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에도 접하였으며 이곳에서 림발드의 조직신학도 배웠다.⁵⁾

이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다시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후 1531년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 위대한 휴머니스트들과 함께 연구를 했다. 칼뱅은 파리의 체재하고 있는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바의 《de clementia》(관용론)에 관한 학구적인 주석을 썼다. 이것이 그의 최초의 저작이었다. 이 책은 라틴어로 기록되고 조예가 깊은 휴머니스트임을 들어냈다.

이러한 능력과 태도들은 그가 후에 종교 개혁자로서 활동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른 프로테스탄트 휴머니스트 활동가들과 우정을 나누는데 있어서 확고한 근거가 되었다. 그는 《de clementil》에 대한 연구서를 출판한 얼마후에 자크 르페브르 테타롤로가 이끌던 종교적 개혁자들의 집단에 속한 휴머니스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프로테스탄트 주의로 전향

3)T. H. L. Parker. 「Portrait of Calvin」 (england: The Westminster press, 1940), p.13.

4)Thomas T.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II (Edinburgh : T. & T. Clarl. 38 George Street, 1964), p.84.

5)Parker. 앞의 책, p.15.

했다. 얼마후 프로테스탄트 집단에 대한 왕의 추방령이 있게 되자 그는 파리를 떠나 스위스에 프로테스탄트 중심지인 바젤에 정착하게 되었다. 거기서 칼뱅은 집중적인 신학연구에 몰두했으며, 무엇보다 성서에 집중했다. 또한 초대 교부들과 그리고 루터나 마틴 부버와 같은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의 저작들도 연구했다. 특히 카톨릭 신학에 대한 칼뱅 지식의 대부분은 두 권의 기본적인 중세기 교과서인 페트르스름바르두스의 《sentences》(신학에 관한 책)와 그라티아누스의 《decretum》(교회법에 관한 책)에서 얻은 것이었는데 바로 이 연구의 주된 결과로 그의 저작인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기독교 강요)이 1536년에 출판되었다. 이것의 초판은 일종의 교리 문답을 확장해 놓은 것으로 라틴어로 쓰여졌으며, 프로테스탄트의 본질적인 교리들을 깨끗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짓된 것이라고 본 성례들을 비판한 참가적 자료들도 있었으며, 그는 이 저작으로 인해 곧 프로테스탄트주의의 권위 있는 대변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책은 이 후에 여러번 걸쳐 개정하고 증보되었다. 「기독교 강요」는 교의 신학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편람이 되었으며 사실상 종교 개혁 동안에 산출된 가장 영향력 있는 단권의 편람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중요한 새 형태의 관념적 근거가 되었다.

칼뱅이 학구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안 개혁운동은 점점 확산되어갔다. 1529년 4월에는 슈파이엘 제국회의를 열어 로마 교회의 부당성을 선포하고 개혁파 제후가 결속하여 항의문을 제출하였다. 이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칼뱅이 완전히 종교 개혁의 복음주의에 기울어진 시기는 1533년 경이었다. 칼뱅이 종교개혁에 직접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파리대학 총장

이었던 코프(cop)의 연설문을 작성해 주었다는 소문에 프랑스를 떠나라는 압력을 받을 때였다.⁶⁾

프랑스를 떠난 칼뱅은 독일 스트라부루그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의식문을 작성했으며 성서적 저작 (commentary on domans, 1539)과 신학적 저작들을 출판 했으며, 1540에는 이델레트 드 뷔르와 결혼했다.

제네바에서는 정치적 혁명이 일어났다. 칼뱅은 1537년 처음 제네바를 방문 했는데 반대파에 의해 추방되었다가 다시 1541년에 제네바에 왔다. 그는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해 새 교회 헌법을 통과시켰다.⁷⁾ 이 법규는⁸⁾ 수정되어 오늘날까지 제네바 교회의 헌법 역할을 해왔다. 1537년 창립된 아카데미는 칼뱅주의와 목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 대학교 수준의 언어적 신학적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1559년 제네바 정부를 설득하여 새로운 아카데미를 창립하였는데 이는 제네바 대학교로 발전하였다.

또한 칼뱅은 목회를 하면서 목사회 (the comany of pastors)의 사회자로 봉사하기도 했다. 목사회는 목사 후보자를 선발하는 일 외에 칼뱅의 지도아래 교구의 과제들을 할당하며 정기적인 업무들을 확장하는 일을 하였다. 칼뱅은 장로들의 활동에 몸소 참여하기도 하였다. 목사와 장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은 콘시스토리움(consistorium)이라 하는데 이 콘시스토리움은 우상숭배나 이단 카톨릭의 종교의식을 행한 경우, 그리고 칼뱅에 대해 공공연히 불평한 경우로부터 중대한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 행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수배까지 사례들을 다루는 일종의

6)W.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민경배의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6), p.296.

7)앞의 책, p.300.

8)교회 헌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네 직분을 제정하셨음을 주장하고, 그 직분을 정의하였다. ①설교하는 목사 ②가르치는 교사(당시 제네바학교선생) ③치리하는 장로들 ④가난한자들을 돌보는 집사들이다.

법정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 검소, 절약하는 삶의 모습인 「퓨리탄」이라는 명칭을 얻게되는 도덕적 엄격성을 창조하게 되었다.

1541년- 55년에는 교회의 조직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그의 교리적 권위에 도전은 받기도 하였다. 그 중의 제롬 볼세크와 미카엘 세르베투스의 도전은 만만치 않았다. 볼세크는 칼뱅의 예정론을 비난하다가 추방되었고,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책을 출판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 당하였다.

1555년-64년에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보급시키려고 했던 칼뱅의 관심은 그의 고국인 프랑스로 향하였다. 칼뱅은 급속히 성장하는 이 개혁 교회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제네바는 개혁과 프로테스탄트주의의 중요한 국제적 본부가 되었다.

1560년대에 칼뱅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하여 1564년초 그가 죽기까지 그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저술 활동을 하다가 그해 5월 27일에 죽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칼뱅이 많은 교육 과정과 그의 생애 속에서 그가 휴머니스트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네카의 주석은 그로 하여금 인문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⁹⁾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인문주의는 복음서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회적 인문주의라는 점이다.¹⁰⁾ 그러기 때문에 그는 가끔 격렬하게 인문주의자들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가 인문주의자들을 반대한 것은 인문

9)L. Gonzales.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이형기, 차종순 역, 기독교 사상사Ⅲ(현대편) (서울:대한예수교총회 출판국,1988), p.184

10)A.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성광문화사, 1985), p.19.

주의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일부 인문주의자들의 무신론주의 혹은 배타적인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했던 것이다.¹¹⁾ 또한 그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위해 기독교 강요를 썼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성공 했으나 어디까지나 프랑스 사람이었다.

2. 칼뱅의 윤리의 위치

1) 칼뱅 윤리는 신학적이다.

칼뱅의 윤리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이다.¹²⁾ 칼뱅은 윤리의 원리를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냈지만 철학적 의미의 윤리 체계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윤리와 종교를 깊이 관련시켜 다루고 둘을 구별짓지 아니하였다.

칼뱅은 도덕적인 이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칼뱅은 윤리가 있으며, 그 윤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에서 온 것이었다.

칼뱅이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신과 제네바 시민에게 부과했던 도덕적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성경에서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칼뱅의 윤리는 힘이 있다. 칼뱅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조금도 불명료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었다. 비록 수고와 고통이있고, 피를 흘

11)위의 책, p.22.

12)H. G. Stoker. 「Calvin and Ethics」 in John Calvin : Contemporary Prophet, edited by Jacob T. Hoogstra, p.127.재인용

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칼뱅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영적 싸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검사로 부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¹³⁾

칼뱅은 십계명 속에서 도덕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경의 모든 도덕적인 교훈들마저도 십계명의 뜻을 해석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은 랍비들을 왜곡시키고 오염시켜 놓은 도덕법을 원래의 순결한 상태로 회복시켜 놓았다고 본다.

2) 성경이 윤리의 근원이다.

칼뱅 윤리는 성경이 근원이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였다. 성경은 칼뱅의 윤리 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근원이 된다.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오한 말씀이며, 그 기원을 하늘에 둔 신적 권위로 주어진 책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의 확실하며 진정한 필기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칼뱅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결코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인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그 기초를 성경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의 권위나 성직자, 혹은 어떤 인간적인 기구에 의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야

13)G. Harkness, J.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 Abingdin Press, 1958), p.63. 재인용

한다. 그 까닭인즉, 오직 성령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바른 도덕적 삶을 위하여 개인의 직관이나 일시적인 감정, 사회적 현상에 의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의존하며 그 앞에 굽혀야 한다. 성경은 신자의 신앙 생활의 안내자이며 모든 생활의 규범이요 표준이 되는 것이다.

칼뱅의 윤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서 나온 윤리이기 때문에 그 실천력이 강하다. 또한 칼뱅의 윤리는 인간의 부패 때문에 자력으로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활을 최고의 도덕적 규범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칼뱅의 윤리는 성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하나님 중심적 윤리이다.

칼뱅의 윤리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⁴⁾ 하나님은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다. 그러므로 만사는 그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 상을 받으며,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상을 주시며 공의로 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비인격적 기계론이나 독단적인 운명론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지는 전적으로 무조건적이라고 칼뱅은 주장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행동이 선한 것이다.

칼뱅의 하나님 주권 사상은 절대적이며 전 포괄적이어서 전 창조와

14)G. Harkness. 위의 책, p.69.

인간 생활 전체, 즉 예배와 종교 경제활동 등의 영역에 모두 적용된다. 전 피조물은 하나님의 우주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덕 법은 인간에게 절대적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도덕법은 특별히 십계 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계명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 속에서 꼭 이룩되어야만 하는 윤리의 기준과 그 근거를 오직 하나님에 게만 둔다.

칼뱅의 윤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과 섭리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활을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겠다. 칼뱅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인간의 윤리 생활을 보았다.

위의 내용은 대부분 기독교 강요에¹⁵⁾ 기록된 것이다. 기독교 강요는 교회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회의 도덕 생활의 규범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칼뱅의 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칼뱅의 윤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데 있다.

15)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흡의 역. 「기독교강요 上」(서울:생명의 말씀사, 1990), pp.15-34.

Ⅲ. 칼뱅의 정치 윤리

1. 정치윤리의 역사적 배경

서구 유럽의 역사를 살펴 볼 때, 르네상스(Renaissance)와 종교개혁은 각각 고전 부흥과 성서에 복귀함으로써 개인의 의식을 환기하여 중세적 봉건제도와 그 정치체제를 부정하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 종교개혁은 위계주의(位階主義)의 권위에 반대하고 성서의 절대성과 개인의 내면적 경험, 즉 신앙 이외에 다른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세에서와 같은 정치에 대한 교회의 간섭, 세속권이 종교에의 간섭 등을 배제함으로써 로마교회와 단절하려는 것이었다.¹⁾ 그러므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양상을 달리하는 인간 개혁 운동 및 사회변혁 운동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칼뱅은 로마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친구 콕(Cop)이 파리대학 총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총장 취임연설의 원고를 대신 써 주었고 그 내용이 복음주의적인 것이라 하여 술본 신학자들의 비위를 거슬려 이단으로 몰려 체포령이 내려져 피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간섭하는 로마 교회에 대하여 구조적이고 이념적인 모순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가치론적 반대사상을 키우게 되었다.²⁾ 또한 스위스의 취리히를 중심으로 쾰빙글리가 개혁 운동을 전개하다가 로마 천주교회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게 된 것도 칼뱅으로 하여금 로마교회와 그 제도적 권위에 대해 반감

1) 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박영사, 1976), p.159.

2) H. H. Meeter. 「칼빈주의」 김진홍, 박윤선 역 (부산:성문사, 1959), p.97.

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³⁾

칼뱅은 제1차 제네바 시절(1536-1538)에 로잔느(Lausanne)에서 열린 신·구교간의 공개토론회(1536년10월1일)에서와 베른(Bern)에서 열린 루터파의 대표자들과의 회의(1536년 10월16-18일)에서 그의 뛰어난 조직력과 신학지식의 상황적 연대의식에 대한 정치적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제네바 교회의 정치기구의 확립과 요리문답서를 만들어 신도를 교육하는 일에 노력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정치적 리더쉽(Leadership)을 키우게 되었다.⁴⁾

칼뱅이 정치활동중 큰 시련은 제네바 시의회에서 채택된 교회기구 요항에 의해서 시민들의 신앙생활을 감독하려고 하자 제네바시의 정치가들이 이에 불복하고 반대하였다. 성피엘 교회에서 흥분한 청중들이 칼로 칼뱅을 상해하려는 자가 있어서 마침내 200인 회의에서 칼뱅에게 제네바를 떠날 것을 결정했다. 칼뱅은 제네바를 떠나 오랫동안 제네바 시의회와 대결하였다. 그것은 종교회의를 통한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완전히 회복함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국왕 프란시스 I 세(Francis)는 경건하고 진실된 신도들에 대한 무참한 박해를 가했다. 그는 무지한 신교도 박해자가 되었다.⁵⁾ 국왕은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자기 살인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에 칼뱅은 “만일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나는 비겁하고 불충한 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나를 시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학적 저작물의 정치

3)위의 책, p.97

4)앞의 책, p.101.

5)심일섭.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서울:신교출판사, 1959), p.92.

적 의도와 그 해석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그의 시편 강해 서문에 기록하고 있다.⁶⁾

이러한 칼뱅의 신념을 더욱 박차면서 부채질한 정치적 배경은 중세기의 교황중심적 교권 획일 주위에서 탈피하고 기술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민족국가의 역사적 등장이었다. 단테는(Dante) 그의 왕정론(De Monarchia) (A.D. 1310-1311)에서 왕정국가의 독립적 존재이유를 주장하였고 오컴(William of Ockham : A.D. 1285-1347)역시 국가의 독립성과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⁷⁾ 무엇보다도 파리 대학의 총장이었던 마르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 A.D. 1275-1342)의 <평화의 수호자> (Defensor Pacis, 1324)는 당시 교황 중심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인정하면서도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치국가의 존재이유를 갈파하였다.⁸⁾ 이와 같은 후기 중세기 민족 국가주의적 왕정국가론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물결과 더불어 종교개혁 당시 스페인(Spain), 프랑스(France), 영국(England), 독일(Germany)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왕정 국가를 탄생시켰다.⁹⁾ 다른 한편 사회체제에 있어서는 봉건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경제체제에서도 봉건주의적 농노주의에서 상업주의적 자본주의로 바뀌었다.¹⁰⁾

칼뱅의 개신교적 개혁 운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세기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귀속하고 있었던 보편주의적 정치적 권위에 반대하는 것이었

6)J.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s of Psalms」, Vol. I-V, Trans, James Anderson(Michigan : Baker Book House,1939), pp.35-38. 재인용.

7)Kenneth & Latouredde. 「A History of chistianity」, Vol. I (New York : Har per & Row, 1975), p.479.

8)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4), p.6.

9)T. M.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ition」 Vol.1 (Edinburgh : Edinburgh Press, 1963), pp. 18-40.

10)이형기. 위의 책, p.6.

다. 여기에 초지역적인 교회권이 비판됨으로써 절대군주에 의하여 담당되는 민족국가의 정치적 통일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신학적인 사상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로마정치체제의 신적 세속적 지배권을 파괴하고, 또 신성로마제국의 와해를 완성시킴으로써 중세 봉건제의 전지배 기구를 뿌리에서부터 동요시키는 것이었다.¹¹⁾

칼뱅의 정치사상은 이러한 신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 지체의식적 상호 구조였다는 것이 그의 사상을 탄생한 역사적 배경에서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칼뱅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방대한 저서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2. 통치자의 책임과 의무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신념체계가 종교이며 국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구조이다. 종교는 신앙에 국가는 힘(Power)에 바탕을 두고 그 맡은 바 직능을 행사한다.¹²⁾ 칼뱅은 국가와 종교 또는 이 세상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성서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정치단체는 가이사의 것이므로 교회가 정치단체의 권력아래 있을 수 없고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뱅에 있어서 정치적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권세의 주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국가권력도 그리스도에게 나왔기에 이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

11)정인홍. 앞의 책, pp.213-215.

12)D.Cullman, 「The State in the New Testament」(New York : Charles Scribner, 1956), p.34. 재인용

13)H. Meeter. 앞의 책, p.142.

인간은 타락하여서 최악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정부의 관헌을 인정하셨다는 사고 구조를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면서 정치운리를 전개한다. 즉 이 세계의 통치는 신의 섭리와 거룩한 제정에 기초한다.¹⁴⁾ 그러므로 국가의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통치자의 책임을 말할 때 권위를 말할수 있다. 즉 통치자의 고유한 권리를 말할 때엔 그 권위를 염두해두며, 백성이 특권을 말할 때는 자유를 생각하게 된다.¹⁵⁾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가 정당한 원리대로 성립될 때에만 권위와 자유가 다함께 적당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지배자의 무제한적 권한은 그로 하여금 전제, 독재, 압제정치를 하는데 이르게 하고 백성의 무제한적 자유는 방종, 정치적 무정부주의 폭민정치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항상 정당한 관계를 힘써 유지함은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여기에서 책임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통치자이건 피통치자이건 양자 공히 그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그에 앞서 책임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모든 권리는 철저한 의무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국가와 국민, 이 둘은 다같이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위하여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지배자와 국민이 다같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는 높은 차원에서의 협동에 의하여 권위와 자유를 둘 다 보전하려고 함이 칼뱅의 생각이다.¹⁶⁾ 그러므로 통치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통치권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임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절감해야

14)김종흡 역. 앞의 책, IV. 20. 4.

15)강숙진. “칼빈의 정치사상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현대적 의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85. p.34.

16)H. Meeter. 앞의 책, p.147.

하는 것이다. 다 같은 사람인데 유독 통치자들에게 특별한 권위가 주어진 것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인 것이다.

칼뱅은 정치적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하고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유한한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중에 가장 존중할만한 것임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고 한다.¹⁷⁾ 그래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은혜와 인애와 공의의 어떤 형상을 자신에게서 재현시켜야 한다. 통치자는 죄를 가할 때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임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¹⁸⁾ 언제나 통치자가 책임의식속에 해야 할 임무는 하나님께 대한 외적 예배를 조성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안정을 옹호하며, 사회질서와 조화를 수립하고 국민의 준법생활을 지도하며 국민의 공통된 권익과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칼뱅은 주장한다.¹⁹⁾ 통치자들은 자기의 직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종속된 사람들을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위탁수행의 근거위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칼뱅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권력과 통치자의 권위에는 분명한 가치적 기초가 있고 통치행위의 명분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칼뱅은 국가절대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고대자유주의와의 중간점을 취한 정치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칼뱅은 통치자가 사리사욕을 금하고 공공복리에 투자하여 빈민과 피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주장했다.

3. 피통치자의 의무

17)기독교 강요, IV. 20.4

18)기독교 강요, IV. 20.10.

19)위의 책, IV.20.2.

피통치자는 국민이다. 통치자의 의무도 있지만 칼뱅은 피통치자의 의무도 주장한다. 피통치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세우신 사람들에게 복종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피통치자(국민)는 이 세상의 통치가 확립되어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국민에 대한 그의 아버지로서의 배려를 인식해야 하며 위에 있는 권세가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²⁰⁾ 그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큰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은 하나님 자신이 세운 위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표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치자들에 대한 국민의 복종의 의무인 것이다. 이 복종은 단순한 인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은 위에 있는 통치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든지 관계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한다.²¹⁾ 국민이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할 다른 이유는 국무를 정당하게 또는 신속하게 집행 하는 데는 국민의 적극적인 순종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칼뱅은 법률이 국가의 생명과 같다고 하면서 질서 정연한 사회를 위하여서는 법률순종이 그 기초가 된다고 강조한다.²²⁾ 국민이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를 위한 봉사 때문이다. 이 봉사는 애국심의 발로인 것이다. 성경은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²³⁾

국민에 대한 위의 권세의 주권은 그 본질상 봉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20)E.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2 (New York : The Macmillian Co, 1956), pp.903-904. 재인용

21)강숙진. 앞의 책, p.37.

22)위의 책, p.37.

23)기독교 강요, IV. 20.31.

아니다. 국민은 위의 권위에 복종하고 국가는 또한 국민에게 복종한다. 이러한 봉사과 복종의 상호관계는 하나님 자신이 통치자와 피통치자 위에 계시며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이 세계통치를 수행하신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위의 권세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 자신이 통치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칼뱅의 정치사상에는 정치적 반항에 관한 일국면이 있다. 그는 특정한 하위 장관에게는 국가의 수반에 있는 폭군에 반항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과하는 법률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이 그러한 하위 관리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항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생긴다고 본다.²⁴⁾ 그리하여 보통 민간인으로서서는 반기를 들 수 없지만 집정관(Ephoros)이나 로마의 호민관(Tribune)이나 또는 아텐의 데마크스(Demarchs)와 같은 당국자는 폭군의 폭정으로부터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군에 대항한 것이 그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 칼뱅은 말한다.²⁵⁾

그러므로 국민은 권세에 순종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안에서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칼뱅의 정치 윤리 사상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인간행위의 정치성을 이해 할 수 있다. 정치성 이념성을 인간행위의 가치론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그 근거를 재해석 할 때 정치적인 정당화 과정이 상대성 속에서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인물에게 그 가치가 귀속되어진다.

이러한 정치 윤리사상에 에른스트 트뢰츨취(Ernst Troeltsch)는 크게 칭찬한다.²⁶⁾

24)기독교 강요, IV. 20.33.

25)장숙진. 앞의 책, p.39. 재인용

26)E. Troeltsch. 앞의 책, p.621.

칼뱅주의는 상충되는 개인과 사회와의 양면을 매우 중요하고도 유력한 방법으로 균형있게 보존시킨다. 사실로 칼뱅주의 정치론의 일대 중요성은 단지 기독교 정치론에 하나의 훌륭한 종류인 점에 있지 않고 일반 정치적인 사상계의 위대한 모형들 중의 하나인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론의 내적 의의와 역사상 운동력에 있어서 프랑스의 낙관적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나, 국가 사회주의나 또는 단순한 권력설등은 칼뱅주의와 비교할 때 훨씬 떨어진다.

한마디로 칼뱅의 정치 윤리는 신앙 윤리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바탕이 된 윤리라 할 수 있다.

IV. 칼뱅의 경제 윤리

1. 칼뱅의 경제 윤리관

자본주의 발달로 말미암아 생계비가 높아지고 노동력의 가치는 날로 하락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도시와 시골에 있는 가난한 다수의 임금노동자들이 출현하였다. 다시 말해서 무산 계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1533년까지만 해도 칼뱅은 카톨릭 중산 계급의 인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칼뱅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신앙과 사회에는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개인 윤리의 차원을 떠나서는 아무런 상호 의존이나 상호관련도 맺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칼뱅은 일단 개종한 뒤에는 아주 자유롭게 왕과 지배 계층이 위협한 혁명 분자요 또한 폭도들이라고 간주했던 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강요」 초판 서문에서 발견되는 그의 서신은 1533년 봄에 프랑소와즈 1세에게 보내는 글인데 이 글이 칼뱅의 공적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¹⁾ 칼뱅은 이 글에서 복음이 이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정치 및 제반사에 있어서의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한 자들을 격렬하게 공격하였다.

칼뱅은 더 이상 신앙과 세상을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는 세속 도시에 대한 관심이 그의 기독교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이었다. 1535년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의 서문에서

1) A.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John Knox, Press, 1964), p.54 재인용

칼뱅의 사회생활이나, 현세 생활과 적극적으로 관련하여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를 거의 불신앙적인 것으로 맹렬히 힐난하였다. 진실로 칼뱅은 제네바의 개혁자로서 시민의 도덕적 훈련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복음과 국가 및 시민 생활과의 관계를 일원화하려고 끈덕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성화 길을 걷는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었으며 예수그리스도의 이상성(理想性)을 모방하여 근신과 공평함과 경건한 생활 태도로서 자기를 부정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

당시의 제네바는 국제적 상업 도시로서 번영의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그의 경제적 번영은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고, 화려와 사치에 흐르게 했으며, 특히 중세적 금욕으로부터 해방된 르네상스의 자유 비트족들은 새로운 사치품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칼뱅은 근신, 공평, 경건의 윤리를 제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일반이 알고 있는 신앙과 생활이 이원화된 서구 신학이 칼뱅의 유산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조국으로부터 추방된 망명자, 귀족, 학도, 그리고 상인들과 함께 동지애를 가지고 연대의식하에 일을 하였고, 소명에 충실했다. 특히 그들을 위하여 화폐에 대한 새로운 성서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지런히 직업에 충실하려면 우선 장사를 하든지 공업을 일으키든지 간에 어쨌던 일정한 화폐가²⁾ 필요하였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물질과 정신의 가치를 대립시키는 이원론을 지향하여 화폐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다. 성경에 투철한 칼뱅은 정신이나 물질이나 하는 따위의 형이상학적인 추상

2)칼뱅의 저서중에 “PeL’ clsre(고리차론)이 있는데 집필연대가 분명하지 않다. 칼뱅은 이 책에서 5% 한도내의 이자액을 허락하고 있다.

성이 노출한 관념적 도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만 성경에만 입각하여 물질적 재화가 신의 도구로서 만인의 공동 부지를 위해 사용 될 것을 회구하였다.³⁾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富)를 주신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생활뿐만 아니라 연대적 책임 사회를 위해 사용함에 있었다. 그래서 화폐란 단순히 실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정신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이런 점에서 칼뱅은 자본 주의자 일수 없으며, 또 전체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자 일수도 없다. 그의 경제 윤리관을 볼 때 그는 사회적 인격 주의자 또는 휴머니스틱한 사회주의자라고 함이 타당 할 것이다. 그의 경제 윤리 중에서 사회 빈부론은 중요하다.

2. 빈부에 대한 일반적 견해

칼뱅의 빈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빈부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우선 부와 빈곤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에 칼뱅의 빈부론을 살펴본다.

(1)부의 개념

기독교에서는 물질 즉 재산을 어떻게 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시대인 초대 교회, 중세기, 종교 개혁 이후까지의 재산의 소유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부의 개념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1)초대 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소유를 자발적으로 분배하고 궁핍한 자들을

3)기독교 강요, II. 7,5

돕기 위하여 모금을 하였을 지라도, 재산의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⁴⁾ 4세기의 교부들에 의하면 재산은 원래 공유하는 것으로 주장되었으며, 사유재산은 인간의 타락후에 생겨난 것으로 알았다. 그리하여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사유재산의 관리는 자연법에 의하여 인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⁵⁾

2) 중세기

아퀴나스(Aquinas)는 사유재산을 자연법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에 견해는 초대 교부들과 매우 달랐다.⁶⁾ 그의 이론에 따르면 재산과 취득의 사이에 도덕적인 차이가 있었다. 만약 어떤 굶주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취하여도 도둑으로 지목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정당화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이론이 20세기 초 교황들의 회칙들 안에서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 왔음을 볼 수 있다. 그 회칙들은 “물질은 사적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초대 교회와 중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이해 할 수가 있다. 토니(R.Tawney)에 의하면 중세기에서는 이상과 현실과의 사이에 심연의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은 경제활동이 윤리적 원칙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

3) 종교개혁 이후

4) A.J.Carye, 「Poverty, Its Dutties and Rights」 (London : Macmillan, 1915), p.120.

5) A.J.Carye, 위의 책 p.122

6) T.Aquinas, 「Summa Theologia」 II-II, P66 a.1 cited by George F.Thomas, 위의 책 p.309

7) R.H.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 harcourt Brace, 1926), ch. 1, sec. III 재인용

종교개혁 후에 칼뱅은 중류층의 경제활동을 정당한 것으로써 받아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안에서 활동한다고 했다.⁸⁾

17세기 말에 존 로크(J.Locke)의 이론은 크리스찬의 재산에 관한 사상에 전환점이 되었다.

로크(Locke)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노동을 투자한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가지며, 사유재산의 권리는 시민 정부가 설립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으며, 사용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땅을 이용 할 수 있고 개인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재산의 권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써 주장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⁹⁾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들은 교회가 평상시 재산의 권리를 정당하게 인식하여 왔으며, 또한 재산의 도덕적, 사회적 위험들을 날카롭게 인식하여 왔고 복리를 보호하여 왔음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로크와 같은 후기 청교도들이 준비하였던 재산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무한하다는 현대의 신조는 19세기의 극에 달한 경제적 개인주의의 산물이었다.¹⁰⁾

토마스(Thomas)는 지난 세기 동안 많은 크리스찬에 의하여 재산의 권리가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약성서의 정신과 대조적이며 교회의 경제 사상의 주된 전통과 모순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의 재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기독교 사상의 지배적인 전통은 늘 사유재산의 필연성을 인정하였다.

8)T.Aquinas 앞의 책, p.309.

9)J. Locke. 「second Treatise on civil Gorerment」 ch.V pp.30-33. 재인용

10)위의 책, p.311.

둘째, 그렇지만 재산을 획득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권리의 주장을 시인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인 주장은 경제적 개인주의를 산출하게 되었다.¹¹⁾

셋째, 사유재산의 자신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의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¹²⁾ 에밀 부르너(E. Brunner)는 그의 저서 「정의, 사회질서」(Justice and the social order)에서 “재산 없이는 자유가 없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의 창조로 인해 세워진 권리이다.” 때문에 “이 재산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¹³⁾”고 보며 인격과 가장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물건에 대해 절대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지기라는 것이다.

대비드 맥코나기(David McComaghy)는 모든 가치와 물건은 돈으로 계량하는데 그것은 사물의 가치 표준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인격을 헤아리고 작정하며, 사람을 헤아리게 하는 물건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금전을 장만하는 사이에 금전은 사람을 지어낸다¹⁴⁾고 하면서 결론 짓기를 재물은 인격을 시험하는 물건이라는 것이다.¹⁵⁾

헤버트 와담스(H. Waddams)는 창세기에 있는 타락 이전의 인간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사유재산으로서 에덴의 낙원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

11)위의 책, p.331

12)위의 책, p.313.

13)E. Brunner. 「정의, 사회질서」, 전택부역, (서울:평민사, 1980) p.206.

14)D. McConaghy. 「금권은 인격의 시험품」 광안련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58), p.29.

15)H. Waddams, 「An Introduction to Moral Theology」(London : SCM Press, Ltd, 1905), p.221 재인용

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며, 성서 안에서는 어떠한 사유 재산의 설립도 추적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유재산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사악한 특성 때문”이며, 사유재산을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중립적이다. 또한 사유재산은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선하고 악한 것은 전적으로 사용의 방법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재산의 절대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가가 절대적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¹⁶⁾

또한 인간이 갖는 재산권에 대한 기본 원리는 재산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도록 주어졌으며 그의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¹⁷⁾라는 것이다.

(2) 빈곤의 개념

부와 빈곤과는 상반 관계에 있다. 인간이 취하는 부에 대한 욕심은 그릇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즉 사람은 자기 성공의 표식으로나 타인에 대한 지배의 수단으로 부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는 위험성이 있다.

성경 주해가 윌리엄 바클레이(barclay)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⁸⁾

첫 째, 기독교인은 소유물을 소유하되 소유물에 소유되어서는 안되며

16)위의 책, pp.222-224.

17)위의 책, p.224.

18)W. Barclay. 「Ethics In A Permissive Society」 (London and Glasgow : Collins, Fratana Books, 1971) pp.111-119

둘째,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야 한다.

셋째, 재물은 소유로 말미암아, 잘못된 독립심을 조장시켜줄수 있다.

넷째, 돈을 벌기 위해 불명예스런 행동을 함으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행복보다는 두려움을 가져올 뿐이다.

다섯째, 많은 소유는 인간의 마음을 영원이라는 빛에서 멀리 이세상의 사물에 고착시켜 준다.

여섯째, 재물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싶다. 그러므로 사람은 빈곤을 추구해서는 안되지만 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도 안된다.¹⁹⁾ 재산의 소유는 일에 있어서, 자주제가되며, 대부분의 인간의 경우 물질적 소유에 대한 약속이 일에 대한 열의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부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빈곤의 전통적인 개념은 개인 및 가족의 일차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였다. 오늘날 빈곤의 개념은 대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고 종래에는 최저 생계비를 말하였지만 현재적 개념은 그런 경제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교육, 건강, 비행, 불평등,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 또는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전경연은 빈곤을 사회적 개념으로 보고 또 부에 대립한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데²⁰⁾ 빈곤이란 생활에 있어서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경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에서 의미하는 물질적인 요구라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나학진. 「기독교 윤리학 개설」(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 1979), p.123.

20)전경연. 「예수의 교훈과 윤리」(서울:향진사,1974), p.300.

그렇다고 한다면 빈곤의 정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부요한 사람이 필요로 생각하는 물질적 요구는 일반 하류층의 사람들이 생각 할 때는 너무 지나치거나 분수에 맞지 아니하는 요구라고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¹⁾

성경은 빈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음식의 결핍과 기근에 관한 기록이 있다. 빈곤은 굶주림이요, 굶주림은 힘을 얻는데 대한 결핍의 징조이다. 굶주림은 생명과 관계된다. 굶주림과 기근은 인류가 싸워 온 자연적 사건으로서 죄의 흔적과 인류의 불행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 빈곤과 굶주림은 결합되어 있다. 가난은 굶주림이다. 굶주림과 가난, 빈곤을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빈곤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빈곤의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하려는 사람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사회 문제가 된다.²²⁾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빈곤은 빈곤자가 곤경한 상태에 적응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위협을 줄 때 사회 문제가 된다.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층인이다. 옛날에는 농민들이 그 핵심을 이루었지만 근대 시민 사회에 와서는 노동자와 빈농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발달로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²³⁾ 그렇지만 성서적으로 보면 가난한자의 현실은 언제나 있었고 이것을 극복하는 사랑의 실현은 자연스런 사회성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3.칼뱅의 빈부론

21)신인현. 「빈곤에 도전하는 기독교」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0), pp.14-15.

22)김영모. 「현대사회문제 돈」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1), p.45.

23)위의 책, p.45.

24)이강천. 「기독교 윤리개설」 (부천:서울신학대학출판부, 1980), p.132.

(1)칼뱅의 빈부관

칼뱅이 살고 있는 제네바 도시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제네바시는 극빈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칼뱅은 고아, 노인, 환자들에게 시 재정으로 집을 주고, 떡이고, 교육시키고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시의회에 보고하였다. 칼뱅이 이렇게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그의 성서 중심의 신앙관 때문이다. 칼뱅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보았다.

칼뱅의 주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을 주석 하면서 칼뱅은 하나님 앞에서 식물과 같은 일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공격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미치므로 우리의 육신을 돌보는 일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²⁵⁾

그러나 일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칼뱅은 빈곤이나 불행은 그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냉대의 증거로 보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번영을 어떤 개인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보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선택의 증거로도 역시 보지도 않았다. 사실상 칼뱅은 부의 평등한 분배를 선행으로 보지 않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강조하였다.

「억압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았거나 버림받은 자들로 생각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매우 잘못된 견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부의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판

25)김광수. “칼빈의 경제윤리연구”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26
재인용

단하고 부자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행운이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 한편 그들은 불행하거나 비참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저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과오는 이 세상 어느 시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과오이다.」 26)

칼뱅주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를 개인적인 변영에서 찾았다고 주장한 막스 베버의 견해는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진화론(social darwinism), 즉 적자생존의 생물학적 원리가 경제발전에 적용된 것이 비기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류 사회의 많은 신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칼뱅은 그러한 잘못된 영향이 전능자의 은밀한 섭리에 전적으로 기여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부와 빈곤은 신성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부와 빈곤은 하나님으로 부터오는 은혜의 통로이며, 인간편에서는 믿음을 증거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악용하는데 대한 칼뱅의 신랄한 비판은 단순히 종교개혁의 금욕주의는 아니었다. 칼뱅이 제네바의 부자들을 각성 시킨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법이었다.

참으로 칼뱅의 사회경제 윤리에서 어떤 중심 주제가 있다면 부자가 형제를 돕는데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일 것이다. 인간 사회의 연대 책임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데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주장은 칼뱅의 경제 평등 윤리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26)위의 책, p.26.

(2)칼뱅의 분배관

칼뱅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수취인 (receveurs)이며, 이웃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하는 사자로 이해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했다.²⁷⁾ 이것은 법적으로 이행하는 의무는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형제들이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도움은 사랑으로 베풀어져야 한다.

“사랑이 결여된 친절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다.”고 말하고,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형제들의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²⁸⁾

칼뱅의 말에 별다른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칼뱅은 그런 재물의 분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한 나누어주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지라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태복음 6장 19절-20절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주석 하면서 칼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²⁹⁾

「재산을 팔라는 명령은,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보존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의 수입이 그들의 부족을 공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재산을 그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

27)칼빈전집 편찬위원회 「칼빈전집 (Corpus Reformatorum Calvini Opera) 제27권」, (서울:보문사, 1981) p.338.

28)위의 책, 제55권, pp.340-341. 요한일서 3:17

29)위의 책, 제45권, p.205. 마태6:20.

졌다. “너의 관대함이 너의 기본 재산을 줄이는데 까지 하고, 너의 땅을 처분하는데 까지 하라”」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풍부히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관대함은 조금도 가난한 사람들의 감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몇 세대전에 부유층의 사람들이 예의를 갖고 아낌없이 도와준 자선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를 소홀하게 함으로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적 원조와 기술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후진국에 대하여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입장을 나타낸다.

그러나 칼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징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받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위치를 행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무를 잘못 이행하거나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감사의 표시가 없을 때, 우리가 베푼 자선이 오히려 우리에게 충분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³⁰⁾

경제 윤리에 있어서 칼뱅의 가장 새로운 사상은 재물의 공정한 분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주장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한 몸의 지체로 살기를 원한다. 형제나 이웃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반드시 도울 것을 권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결합시킨 형제애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각자가 이웃에게 봉사하기를 원한다.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서로 헌신하기를 바란다. 칼뱅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경제 윤리에 철저히 담고 있다.

(3)돈에 관한 견해

30)김광수, 앞의 책, p.28.

종교개혁과 마틴루터(luter)는 세가지 회개를 주장하였다. 양심의 회개, 정신의 회개, 돈지갑(호주머니)의 회개이다.³¹⁾ 이 세가지 중에서 현대인들은 돈지갑의 회개가 가장 어렵다. 돈 문제가 일상 사회생활에서 거론될 때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되고, 개인 생활 속에서 거론될 때는 도덕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된다. 돈이란 인간의 마음을 잡기도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기도 하며 돈으로 인간의 생명까지 살 수 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세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수께서 돈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실로 복음설화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님의 경고와 권고들은 반복적이며 단조롭기까지 하다. “화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눅6:24)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16:13)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마6:19)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19:24)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눅12:15)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눅12:33) 문제는 예수님의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명백하면서도 엄격하다는데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돈의 소유 문제만으로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돈을 맘몬이라고 부른점³²⁾에서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는 보통 돈이나 부를 나타내는 아람어 낱말을 쓸 수도 있었는데 맘몬이라는 낱말을 씌으로써 돈을 의인화하고 그것을 일종의 신격으로 다루었다. 자크 엘룰(jacques ellul)는 그의 저서 「하나님이냐 돈이

31)Edward W. Bauman, 「Where Your Treasure In Arlington」 (Va : Bauman Bible Telecasts, 1980), p.74 재인용

32)마태복음 6:24. 누가복음16:13참조

나」에서³³⁾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는 것은 첫째, 돈은 하나님의 ‘권세(quissanct)’라는 점이다. 둘째, 그 권세는 영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세는 영적인 의미와 방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권세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 설정한 병립 관계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되며, 어느 것이든 둘 중에 하나와 인간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한다기 보다 돈이 사람을 필요로 하며, 돈이 사람을 얽매어 돈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되도록 사람을 예속시킨다는 것이다.

칼뱅은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이라고 가르친다.³⁴⁾ 또한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칼뱅은 이것이 돈의 사명이며 그의 돈에 관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칼뱅의 경제 윤리 사상을 살펴보았다. 그가 주장하는 경제 윤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얻되 탐심을 갖고 추구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정직하게 일해서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게 가진 자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많이 가진자는 탐심과 무절제, 낭비와 불필요한 소비, 그리고 교만이나 허영으로 재산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칼뱅의 경제윤리 사상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수 있다.

33)J. Ellul. 「하나님이나 돈이나」 양명수역 (서울:대장간, 1991), p.98.

34)김광수. 앞의 책, p.30.

V. 칼뱅의 사회윤리

1. 칼뱅의 휴머니즘

칼뱅은 신학자이면서도 윤리적인 면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칼뱅의 윤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일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모든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윤리적 거대성 때문이다. 칼뱅은 성서를 중심한 신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사회윤리에 관심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학자들(비엘렐, 비서트 후프트등)에 의하면 칼뱅이야말로 사회윤리적인 혁명적 휴머니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신의 영광만 위한 신중심주의자 칼뱅이 어떻게 인간의 불평등과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이며 휴머니스트라고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를 자본주의적 자유방임주의라 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칼뱅의 신학적 윤리사상은 종교개혁시대부터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개혁교회의 윤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칼뱅의 인간관은 신 앞에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이다. 인간은 지난 수세기 동안 신에게서 해방되어 이성의 무한한 힘을 다하여 과학을 발전시켜 낙관주의적 삶에 치우쳤다. 그러나 20세기 접어들면서 제1,2차 전쟁을 겪음과 동시에 원자 무기 및 여러가지 핵무기의 위협을 받으면서 부터 인간은 다시 자신의 이성애 절대주의 신뢰에 대한 회의에 부딪혔다.

까뒤는 그의 ‘반항적 인간’의 결장(結章) “허무주의를 넘어서”에서 20세기 인간이 지닌 운명적인 허무의 심연을 극복하려고 새로운 휴머니즘을 전개하였다. 또 사르트르 역시 ‘스탈린의 유령’이나 ‘변증법적 이성비판’에서 “인간의 자기 소외”를 없애려고 노력하였다.¹⁾

이러한 인간상의 문제는 칼뱅의 신학에서 훨씬 명답을 얻을 수 있기에 우선 종교개혁 당시로 돌아가서 칼뱅의 인간상을 일별해 봄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칼뱅 시대의 인간들은 현대 실존주의 작가들이 폭로한 허무와 죄책에 가득찬 실존마냥 자기 무력과 죄의식에 깊이 빠져있었다. 그때의 상황을 털리히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무의미와 내적 죄책의 콤플렉스에 잡힌 시대였다고 했다. 그러나 칼뱅은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를 정치제도나, 예술, 문화 일반 또는 이성의 계발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참 인간의 모습을 재발견하려고 했고 거기로 복귀함으로써 인간의 깊은 불안의 안개가 개이리라고 확신하였다. 즉 바울이 말한 예수안에서의 새인간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대 기독교 문화의 원천에로의 복귀만을 제창하고 회랍교전에의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요컨대 칼뱅은 자기 소외에 흐느끼는 인간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인간 연구를 했다. 칼뱅은 인간형성과 소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화(義化)를 강조하였으나 신생(新生)의 생활에는 그렇게 역점을 둔 것 같지는 않다.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칼뱅은 법의 제3용법을 제기하면서 의화 후의 생활에 더 큰 관심을 두었던 것 같다.

1)김광수. 앞의 책, p.12. 재인용

칼뱅에게 있어서 신앙은 의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착한 윤리적인 생활에서 광채를 발한다고 보았다. 칼뱅은 인간 형성 과정에 있어서 있어야 할 생의 3대 덕을 제시했다. 그것들은 근신, 공정, 경건이다.²⁾

①근신;근신이란 어떠한 역경이나 가난 속에서도 참고 이기며, 항상 정결하고 절제함으로써 모든 것을 근엄하게 사용하는 강인한 생활을 말한다.

②공정;공정이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공평무사한 의무감과 아울러 사랑과 평등을 유지하는 일이다.

③경건;그리고 경건이란 신 앞에 겸허하며 성령으로 더러워지고 죄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순화시키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칼뱅의 인간 형성은 모든 것에 근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스스로 무사공평(無私公平)하게 봉사하며 신 앞에 성결함으로써 겸손한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룩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세계에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이룩된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곧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위한 사랑이 인간성의 실현인 것이다.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룩하려는 단순한 내적 경건이나 근신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전부를 바치는 데 있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다. 주께서 이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집사직(stewardship)을 맡기셨다.³⁾ 이런 집사직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야심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형편과 능력

2)기독교 강요, III, 7,3.

3)기독교 강요, III, 7,1.

에 따라 자기와 자기의 것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희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고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요 법의 제3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 겸손과 절제로 또 교만, 사치, 허영을 버리고 사랑으로 남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을 하게 된다. 이것이 주의 소명이요 명령이다. 이런 일을 더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시켜 놓은 것이다. 그것이 소명(vocation)이다.

아무튼 칼뱅의 소명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야 하고 타자를 위한 사랑에서 이해되고 출발한다. 칼뱅은 성서에 나타난 신 중심의 인간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2. 청교도 정신과 현실

칼뱅의 관심사는 거룩한 사회이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념화에 교육, 행위가 정당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한 이상적 사회건설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확신있는 신정정치를 주장했다. 이 정신이 곧 청교도 정신(puritanism)으로 이어졌다.

청교도주의는 신앙과 행위 그리고 예배의식에 있어서 순수정화를 위

4)김종흠 역. 앞의 책, III. 7. 1.

한 정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청교도란 정신적인 속박을 가져오는 무엇 이든지 항거하여 하나님과의 본래적인 관계를 획득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자 하는 인간 본래의 정신에서 우러나온 신앙적 결단의 공동체이다. 청교도에게 있어서는 성서가 생활의 최상의 표준이었다. 그리고 성서는 신앙과 생활의 안내자이기도 했다.⁵⁾ 성서의 권위는 청교도에게 두 개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에 관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지식은 오직 성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그들은 성서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조직을 가져오게 한 유일한 근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질서와 신앙의 생동감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성서는 전부였고 매장 매단어는 똑같이 영감되어 있고 모든 계명은 똑같이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서에서 그들의 생활의 원칙을 취하였다.⁶⁾

그들은 성서를 매일 개인적으로 읽기를 주장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매일 성서 읽기를 그들의 규칙으로 삼았는데 하루에 세번, 한번에 한 장씩을 읽었다.

이러한 성서중심주의 생활을 더욱 몸에 익혀 그들은 하나님 지상주의, 자기반성의 생활, 성수주일과 공중예배 그리고 명량한 가정생활을 유도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지워졌다.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거룩한 사회를 만들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영국에서 우선 현실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희망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

5)R.B.Perry, 「Puritan and Democracy」 (New York:Vanguard Press, 1944) p.87.

6)G.Wakefield. 「Puritan Devotion」 (New Jersey:Macillan Publishing Co, 1969), p.21.

라고 믿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이러한 거룩한 사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표현되었다. 포괄적이고 성심성의를 다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퍼지는 것을 요청한다. 청교도는 최고의 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널리 퍼트리기를 바랐으며 이 선이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는 데서 얻은 기쁨의 표현이 바로 신앙 그 자체였다.⁷⁾

청교도의 사회적 관심은 연대책임의식 즉 각자의 행복은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의해서 결속되었다고 연대책임의식에 의해서 작용되었다. 연대책임에 대한 청교도의 생각은 모든 사회철학에서 받아들여지는 이 일반적인 원칙과 관련하여서 이루어지며 최고의 선이라는 청교도들의 특별한 사고와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그들의 공동체적 책임의식은 근대민족국가의 대두를 더욱 촉진시키게 되었으나 좀 더 많은 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관료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서 그들의 청교도 정신은 점점 교훈의 내면속으로 사라지고 그들의 정신의 형식만이 현대정치구조와 정체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1)청교도 정신의 변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청교도적 정신은 노동, 절제, 검소 등 금욕적인 생활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관계였다. 196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스트 문화는, 그 자체를 반문화(Counter-Culture)라고 부르듯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거부하고, 청교도 정신의 종말을 가한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상, 사회적 사실로서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청교도 정신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고, 행동주의적 현실로서보다는 퇴색되어 버린 이데올로

7)위의 책, p.26.

기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여, 훈계를 일삼는 도덕주의자에 의해 사용될 뿐이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청교도 정신이란 농촌적, 소도읍적, 상인적, 그리고 장인적인 생활방식에서 나온 세계관이다.

이념 체계로서의 청교도주의는 200년동안 변모를 일으켜 엄격한 칼뱅주의자의 예정론으로부터 에드워즈의 미학적 계몽을 거치고 에머슨의 초월주의를 지났으며, 마침내 남북전쟁 후 “점잖은 전통”속으로 용해되었다. 일종의 사회관습으로서 그것은 자유분방한 개인주의와 돈벌이, 그리고 소도읍 생활이라는 제한적인 규례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정당화로 변형되었다.

저축, 절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핵심이다. 절약과 근검, 검소 또한 청교도 정신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청교도 정신은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고 세속적인 향락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문화는 청교도 윤리가 기초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 모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은 심리학적 행복론에 의해 대치되었다.

청교도 정신은 “지연된 욕구충족”과 보상의 억제라는 말로 간단히 묘사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자원부족의 세계에 있어서 맬더스적인 절약에 대한 명령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체의 주장은 풍요를 가져왔고, 풍요의 성격은 절약보다는 낭비를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높은 생활 수준의 변화의 추진력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19세기;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적, 사회학적 기초와 일치하지 않았다.

3.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오늘날 세계 각나라에서는 국민의 정치참여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양심과 사회제도의 사이에서 신자들은 심한 갈등을 갖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중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⁸⁾

첫째, 기독교 신앙인의 사회 활동은 현대 산업사회가 조성해 내는 ‘비인간화 추세’에 도전해야 한다. 산업사회가 현대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속성은 소외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현대인을 비인간화 하는 기본 요소이며, 기독교 신앙인은 이 요소를 제거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윤리에 호소해야 한다.

둘째, ‘사회 이념 투쟁’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개입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유의 주시 하는데 있다. 특별히 정치-경제 체제의 문제를 놓고 기독교 신앙은 공산주의를 재가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째로, 신앙인의 사회 활동은 ‘인류 생존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예를 들면 전쟁 방치책을 간구하는 구체적인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

네째로, 크리스찬의 사회활동은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이라는 ‘생태학적 이변’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 비판과 자성을 감수하는 길로 진척 해야 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문제에 대하여 우선 인간에게는 이중적인 정부가 있음을 인정한다.⁹⁾ 앞에서도 이에 언급한바 있듯이 첫째는

8)김중기. 「신앙과 윤리」 (서울:종로서적, 1989), pp.179-180.

9)기독교 강요, III.10.6.

영적인 면으로서 양심이 경건의 지시를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정치적인 면으로서 인간이 인간됨의 본분을 배우고 인간 상호간의 시민 정신의 보전을 배우는 부분이다. 이러한 영역을 “영적” 그리고 “세속적” 관할권이라고 부르는데 전자는 영적 생활에 관한 일종의 정부이고, 후자는 현세적 삶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하는 정부이다. 전자는 내적인 마음에 거주하고, 후자는 오로지 외적인 행동만 관장한다.¹⁰⁾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국가관을 먼저 설명한다. 칼뱅이 주장한 국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국가의 공직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들어 섬기는 기능을 부여 하였다고 한다. 즉 칼뱅은 국가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하나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적법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뱅은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위에 두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거부하고 항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안에서의 복종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세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도시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설립하는 일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이 공동체를 가능한 한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로 만들어 감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국가의 시민 생활에 기여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애국심을 보여 주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이다.

두번째,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생활을 향상 시키겠다는 생각을 품고 개인적으로 직접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복음의 요구와는 상충되는 여러가지 요구를 해올 때 마다 국가에 복종하기를 거부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¹¹⁾ 즉

10)위의 책, III.19.15.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체제에 있든지 국가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는 언제든지 거역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저항권은 국가에 복종하라는 기독교의 명령과 상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종의 의무가 갖는 한계를 밝혀준다.¹²⁾

칼뱅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칼뱅의 사회윤리를 살폈다. 칼뱅은 휴머니즘의 사상과 청교도정신에 그의 사회윤리를 담고 있다. 오늘날 그의 사회윤리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면에서 지켜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퇴색하여 현대 산업사회에 기여하지 못했다.

11)A Bieler.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역(서울:성광출판사, 1985), p.47.

12)위의 책, p.44.

VI. 칼뱅의 종교(기독교) 윤리

1. 인간의 타락

칼뱅의 종교 윤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다. 성경 창세기의 창조론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악, 정의와 불의를 식별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지성애와 선택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다.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는 고상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탁월한 존재였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지혜와 판단력으로 영원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러기에 칼뱅은 본래의 인간 존재에 대하여 「인간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대작(大作)이요 만엔 하나님의 정의, 지혜, 선하심이 번득인다.」¹⁾고 하였다. 이러한 고귀한 상태에서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가 의지의 자유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였다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인이 되어 버렸다. 즉 인간은 본질상(by nature)진노의 자식(엡2:3)이 되어 버린 것이다.

칼뱅은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²⁾고 한다. 왜냐하면 타락론은 바로 죄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담의 죄를 ‘불순종’, ‘배신’이란 말로 나타내면서 인간이 본성

1)A. Bieler. 앞의 책, p.25.

2)기독교 강요, II.1.4.

적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한다. “파멸은 우리 자신의 죄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³⁾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죄의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규정되어 진다.

이 같이 칼뱅에게 있어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취하는 태도 곧 반항, 불순종, 불신앙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칼뱅에 의하면 원죄를 범할 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행동인 줄 알면서 행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인간의 어떠한 부분에만의 과오를 죄라 규정치 않고 전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원죄의 손상이 어떤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전성향 속에는 약간의 의성(義性)도 남아 있지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래적인 의로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적이며 불순종적으로 되어 버린 인간은 전체가 허황한 정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본성의 유전적인 타락과 부패이다.

따라서 칼뱅에 의하면 원죄는 육체적인 사건에 의해 자연적인 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그의 의도에 따라 우리 조상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조상과 더불어 동일한 부패와 타락에 처하게 된 것⁵⁾이라고 한다. 인간의 타락이 순전히 부정적이고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온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하여서 죄가 인간의 본질은 아닌 결과이며 또한 인간 본성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어떤 부분적

3)위의 책, III.1.10.

4)위의 책, III.1.8.

5)W. N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p.78.

결함에서 오는 불완전성도 아닌 철두철미 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다.

원죄는 전적인 타락으로 설명된다. 이 타락이란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타락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 실패를 말하는 타락이다. 그러므로 원죄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쾌하게 생각하도록 하며 따라서 성서에서 말하는 육의 역사(役事)를 우리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⁶⁾ 타락에서는 죄를 범했거나(commit) 가진 것(have)이 아니고 바로 그 인간 자체가 죄인인 것이다. 따라서 '죄 밖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칼뱅에게 있어서 아담이 범한 결정적인 죄 곧 원죄인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즉 그의 죄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 있어서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결함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결함이 천지간 자연의 질서를 뒤집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그가 구비하고 있던 진리는 상실되고 대신 무지와 죄악의 무서운 독충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사악의 물결에 잠김으로 죄 이외에 남은 부분이란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⁷⁾ 이것이 타락 이후의 죄인 된 인간의 모습이다. 죄인 된 인간에게는 비참과 절망 뿐으로서 암흑 속에 허덕이게 된다. 이제는 인간 본성이 죄의 노예요 죄 짓지 않는 가능성이 이제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의지가 되었다.

2.칭의와 성화

6)R. Niebuhr, 「기독교 윤리학」 김중기 역(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p.241.
7)기독교 강요, II.5.9.

(1)칭의(justification)

칼뱅은 인간의 행위 변화 과정에서 칭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⁸⁾즉, 죄인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케 되는 것인데, 동시에 이 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전적인 사죄를 얻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는다. 이 의가 마치 자기의 것인양,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의 평화를 일으킨다. 평화와 위로 받는 양심, 깨끗해진 마음을 소유한 인격이라야 성화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애에 대한 확고한 어떤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약속의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되며 또한 인치신 것이다. 신앙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갖고서 칼뱅은 개신교의 신앙에 대한 의인론(義認論)을 고수하였다. 즉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죄인을 객관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의인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의는 마치 의복과 같아서 죄인이 신앙을 입음으로써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이다. 여기에 행위에 의한 의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긍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만족시켜 보려는 시도인 것이다.⁹⁾ 이와는 반대로 믿음에 의한 의인은 행위에 의한 의로움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¹⁰⁾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

8)기독교 강요, III.17.8.

9)J.Gonzales, 「기독교 사상사 III(현대편)」 이형기.차종순 역, (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p.209.

10)Niesel. 앞의 책, p.129.

이다. 그러므로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은 죄인 무리로부터는 자유롭게 된 자이다. 이러한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우리 자신은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로 간주된다. 이것은 인간의 의롭고 선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유하신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인은 “오직 우리밖에” 즉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될 수 있다¹¹⁾고 한다. 그런 까닭에 타락된 인간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며, 이 전적인 구원으로 가령 우리가 죄인이요, 죄인으로 남아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인 것이다.

(2)성화(sanctification)

칼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중생과 더불어 성화를 말한다. 성화나 중생은 먼저 회개를 요청하는데 칼뱅의 회개의 개념을 돌이키는 일 곧 회심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서 시작하여 우리의 육과 옛 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힘으로 생을 얻는데 있다고 말한다.¹²⁾ 성화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의적인 행동뿐만 아니고 영혼 자체에 있어서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와 같이 죄에서는 죽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성화는 바로 이 연합된 생활을 의미하기도

11)위의 책, p.13.

12)기독교 강요, II,11.21.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성화의 생활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의 기록하심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생활도 정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목적하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경건과 의와 성결과 지식에 있어서 기록한 형상을 지니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¹³⁾

칼뱅은 성화가 성령의 역사라고 지적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성화를 위한 것이다. 즉 성화는 우리를 불결과 추함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케하여 줌으로써 해이 해 지려는 정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3)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

칭의와 성화는 신앙의 이중 열매라고 말한다.¹⁴⁾ 칭의가 객관적이라면 성화는 주관적이다. 이 점에서 중생과 성화는 맥을 같이 한다. 다른 점은 성화는 의식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례, 하나님의 섭리 등의 윤리적 수단으로 되어지고 중생은 의식세계 밖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진다는 점이다. 또한 칭의는 외적 변화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 관한 사법적 행위라고 한다면 성화는 인격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인간의 내면에서 내적인 중생을 일으킨다.¹⁵⁾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계속

13)이장식. 「기독교 사상사Ⅱ」(서울:기독교서회, 1966), p.213.

14)J. Richard, 「칼빈의 영성」.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기독교문화협회, 1988), p.147.

15)위의 책, 9.

적인 개혁의 작업이다. 성화는 성령이 인간을 계속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re-making)이다.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거룩함으로 이끄는 점차적인 과정도 내포하는 작업이다. 성화는 단지 여기 이 땅에서 시작만 한다. 반면에 칭의는 받아들여지는 첫 순간부터 완전하다. 칼뱅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비록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칭의는 실제로 의로움의 탓인 반면에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하는 계속적 투쟁 과정이다.¹⁶⁾ 즉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칭의의 결과로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낳고 이러한 사랑에서 칭의가 성화로 나타난다.¹⁷⁾ 따라서 인간의 구원 역시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통하여 완전에게까지 성장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화가 없으면 칭의는 죽는 것이다.¹⁸⁾

3.그리스도인의 자유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자유안에 살도록 택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칭의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복종을 버리고 거리낌없는 방탕 생활에 뛰어 들어 가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모든 절제와 질서와 분별을 폐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

16)위의 책, p.148.

17)김광식. 「신앙에의 초대」(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p.66.

18)위의 책, p.68.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일 이 자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 한다면 그리스도나 복음의 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화를 모두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하며, 그러므로 인간이 자아와 자신의 자유를 추구해 가는 가운데, 자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순간 자유를 상실하고 만다. 그 때 인간은 세상, 자아, 본성의 노예가 되며 이 노예의 상태를 인간은 「자신의 자유」라고 부른다는¹⁹⁾ 것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세 부분이 있다고 했다.²⁰⁾

첫째는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이다. 신자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있어서 율법에 의한 의를 일체 잊어버리고 율법을 뛰어 넘어 더욱 전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소한 행위라도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행위를 계산하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에 대한 채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논의할 때에 율법을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행위에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한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이다. 율법의 강요에서 해방되는 것이 신자들의 진정한 순종을 확립한다. 즉 양심이 율법에 강요되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벗은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지배하에서는 양심은 전전공공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꺼이 순종할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19)A. Bieler, 앞의 책, p.26.

20)김철수, “칼빈의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1), p.38 재인용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실행하려면 우리의 영혼에서 모든 다른 감정과 생각을 없애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욕망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우리의 힘을 이 한 점에 집중시켜야 한다.

셋째는 “무해 무익한 일들”로 부터의 자유이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유를 탐식이나 사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자기 정욕을 위해서 혹은 약한 형제들을 넘어뜨리는데 행사하지 않게 된다. 곧 맑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깨끗이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낭비와 허용과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이 세계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질서를 유지하며 충성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며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4. 그리스도인의 생활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와 표준을 성경에서 찾고 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19:2)는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로 삼는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맡기라고 명령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 당시의 본연의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모

범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현해야 한다고²¹⁾ 말한다. 다시 말하면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근거를 성경에 두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모방” 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모방의 삶을 제자의 삶 또는 제자의 길(道)이라 한다. 칼뱅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것, 경건의 생활 이 세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다.

(1) 제자의 도(道)

1) 자기부정

그리스도의 제자의도의 첫째 요소는 자기 부정이다.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적인 규범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주인이 아니고 주님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칼뱅은 자기 부정을 제자의 도의 규범과 규정한다. 규범은 사유(思惟), 감정등이 일정한 이상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따라야 할 법칙과 원리라고 풀이되고 있다.²²⁾ 규범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논의 될 때 어떤 주지(主旨) 아래서 논의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범의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사유와 감정등은 주지 없이 방향을 상실하거나 당위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규범은 행동을 하도록 결단하는데 반드시 요구된다. 규범은 어떤 주지 아래서 사유와 감정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규정된다.²³⁾ 규범적 성격을 갖는것이 원리나 법칙만이 아니고 도덕적 습관(moral delihertion), 관계론(relationalism)등으로 이해되면서 주지(motit)와 교체하여 이해되기도 한다.²⁴⁾

이러한 규범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아 부정을 가질 수

21)기독교 강요, III.6.2.

22)이희승 편. 「국어 대사전」 (서울:민중서관, 1975), p.386.

23)맹용길. 「현대인과 윤리」 (서울:기독교문사, 1987), p.102.

24)위의 책, p.103.

있다.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 부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부정이란 하나님의 판단에 복종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함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 대한 자기부정은 그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 우리가 현세 생활에서 평안과 평온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의 뜻에 맡기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일임해서 길들이며 복종시키도록 하라고 성경은 권고한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이 취할 길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번영 하겠다는 욕망이나 희망이나 계획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일이 잘되며,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을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복만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일이 바라는대로 되지 않더라도 초조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험오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악한 술책을 쓰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일이 잘 될때에도 그것을 자기의 공로나 노력이나 행운등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평생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고 있어야만 생활이 올바르게 정돈된다.²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정 제1단계는 자아를 포기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섬김이란 인간 마음이 그 자체를 하나님 영의 지시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며 그 자체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

25) J. Haroutunian. 「칼빈의 조직신학 해석」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기독교문화사, 1988), p.378.

록 정해진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다.²⁶⁾ 그러한 헌신의 결과는 인내와 좋은 기분과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손함과 우정이라 할 것인데, 참된 은유는 자기 비하와 남에 대한 존경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3)

둘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정이다.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와 겸손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부인 할 수 있다. 즉 자기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 보다 낮게 여기며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게 한다. 또한 자기 부정은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선행을 자신의 어떤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복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유익이 되게 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게 된다.

자기 부정은 역경을 견디는 힘을 준다. 자신을 주께 전적으로 드리며 생활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만이 자신을 충분히 부정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태연한 사람은 자기를 불행 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 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주를 찬양하며 설혹 굶어 죽을 위험이 있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것이다. 즉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사는것이다.

26)H.Whiteny. 「기독교 강요 핵심정리」 윤두혁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1997), pp.188-189.

자기부정은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육신의 육정을 탈피하여 우리가 무화(無化)됨으로써 신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의 주제는 결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한 기독교적 생의 형성이 아니다. 우리가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이 역사하도록 장소를 내어주는 것이다.²⁷⁾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의 기준이 문제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자신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이 신을 그의 안에서 살도록 한다는 것 즉 신이 행동하도록 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다. 칼뱅이 주장하는 자기 부정의 윤리는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포기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소원과 욕심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십자가의 도(道)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道)의 둘째 요소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예수와의 사이에 십자가를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였고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제거하신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기부정을 요구하며 우리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한다.²⁸⁾

칼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부정의 일부라고²⁹⁾ 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행한 일부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하는 어떤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징표이다.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스토아주의자들의 태도와는 다르다. 즉 스토아주

27)W. Niesel, 앞의 책, p.141.

28)위의 책, p.142.

29)기독교 강요, p.III.8.서두

의자들은 자아 통제와 용맹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스토아 주의자들의 고난은 자신의 교만과 죄를 더 해 줄 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자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신뢰 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하며, 과대 평가했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육에 대한 신뢰를 없애고 하나님만을 믿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항상 십자가에 참여 할 준비를 해야한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대한 도리가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 시키는 것이다.

십자가의 합당한 삶은 온갖 고난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며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만족을 한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짐으로서 우리 주의 기치아래 투쟁하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성공보다 앞세워야 한다. 칼뱅이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부정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면 또한 그의 영광도 함께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영원한 목적에 대한 전망이 있으며 오늘의 삶에 올바름이 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세적인 삶에로의 추구를 포함한다.³⁰⁾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道)에는 그리스도인의 현세에 대한 바른 삶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기 위한 치료제로서 장차 다가올 삶이 중재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현세 생활의 무상함과

30)W. Niesel, 앞의 책, p.145.

불안정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세 생활을 무시하거나 미워해서는 안된다. 현세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중의 하나이며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세 생활은 구원을 촉진 시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무상하고 불완전한 현세 생활을 바르게 평가하면 내세를 소망하게 되는데 내세에 대한 명상과 열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소망을 마련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죽음의 공포를 몰리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삶과 현재적 재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배워야 한다. 현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 특히 돈과 재산에 대하여 앙드레 비엘러는 그의 책 「칼뱅의 경제 윤리」에서 잘 밝혀 주고 있다. 칼뱅은 돈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 그는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 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가르친다.³¹⁾

다시 말하면 경제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원리는 모든 것을 창조의 본래적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 사물을 사용하는 네게의 근본적인 규범을 세울 수가 있는데, 첫째로 자신이 사용하는 사물 안에서 창조자를 보면서 감사 해야 한다. 둘째로 이 세상 재화가 필요하지 않는 것 처럼 가난을 극복하고 견디며 풍성할 때에 절제할 준비를 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세째로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서 언젠가는 계산 할 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고려 하면서 즉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맡겨 놓은 기능을 찾으며, 사물의 올바른 이용은 그 기능에 맞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1)A. Bieler. 앞의 책, p.212.

십자가를 지는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생활 까지도 생명을 주신 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현세 삶에 바른길을 제시한다. 또한 미래에 다가올 생(生)에 기대를 가질 때 십자가의 무거움은 가벼워 진다. 이 세상의 삶은 완전한 행복이 없다. 면류관을 받으려면 하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땅위에의 투쟁이 하늘에서의 대관식에 선행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십자가를 지므로 죽음의 날, 최후의 부활의 날을 기쁘게 맞이 할 수 있다.

(3)경건의 도(道)

그리스도인의 생활중에 중요한 것은 영성으로 무장한 경건생활이다. 성경에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다. (디모데전서 4:7-8)

칼뱅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는 말은 그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한다.³²⁾ 또한 그에게 있어서 교리와 경건도 분리 되어 있지 않다. 즉 교리는 경건을 가르치기 위한 것 이었고 경건은 교리로서 표현 되었다. 따라서 경건은 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를 그 목적으로 삼지 않는 교리는 신실 하지도 경건 하지도 않다³³⁾고 한다.

칼뱅이 “경건(Pietas)”이라고 말 할때 그것은 종교와도 대치 할 수 있는 광범한 뜻을 가진다. 곧 그에게 있어서 경건은 자기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께 의무를 다 하는 일이며 충성으로 헌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32)J. Richard ,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 연구원편 (서울:기독교 문화협회, 1988), p.131.

33)위의 책, p.182.

칼뱅에게 있어서 신학은 경건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요 또한 생활 훈련도 경건을 증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생각과 마음과 생활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그를 경배 하는 관계에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³⁴⁾

이와 같이 칼뱅에게 있어서 신학은 경건의 전 내용을 “바로 기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그가 제네바에서 신학자이기 전에 먼저 목회자 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칼뱅의 신학은 기독교 신앙과 생활의 신학이었고, 그의 목회적 활동또한 그의 신학적 활동으로 표현되었다. 즉 칼뱅신학의 특성은 그의 신학이 언제나 경건에서 유리되어 있지 않았고, 경건을 증진 할 목적에 있었다.³⁵⁾ 그가 「기독교 강요」를 쓰게된 목적도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그의 신학도 경건의 내용을 기술하려고 한 것이다. 그 기술의 목적도 신자들의 경건을 증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칼뱅이 말하는 경건은 기독교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성이란 여러 학자들간에 주장하는 개념이 다르지만 영성이란 하나님의 부르심과 친교로서의 응답하는 것이다. 즉 영성생활이란 하나님과 교제 하며 사는 삶의 차원이며 영성훈련이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³⁶⁾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품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 나가는 과정이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는 형제 자매들 속에 나

34)한철하.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1965. 5), pp.66-67.

35)위의 책, p.68.

36)박준서. “구약신앙과 영성”. 「한국교회와 영성」(신앙과 신학제5집, 1989), p.46.

가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을 구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역 하는 것이다.³⁷⁾

이에 대하여 칼뱅은 영성을 처음부터 “경건(pietas)”과 지식(Eruditio)이라는 용어로서 표현 하고 있다. 즉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³⁸⁾ 다시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써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에게 있어서 영적 생활에 대한 가장 큰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이 이 경건에 이르는 첫 단계로 보았다. 그는 시편(119:78) 주석에서 참된 경건의 본질은 신자들의 두 가지 특질에 나타나 있다고 가르친다. 즉 경외(아버지로서의 그 분께 드러진 순종)와 두려움(주님으로서의 그 분께 행해진 봉사)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그 분을 주님으로서 두려워 하며 존경하고 그의 의를 붙잡고 그 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으보다 더 나쁜 것으로 두려워 하는 것 만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신실한 감정 속에 존재한다. 경건한 자는 자기 생각을 좇아 하나님을 규정하려 하는 무례함에서 떠나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찾으며 그 분이 직접 보여 주시고 제시하신 그대로의

37)오성춘. 「광야의 식탁 I」 (서울:홍성사, 1985), p.23.

38)기독교 강요, III.2.1.

그 분을 받아 들인다. 그러므로 칼뱅의 경건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없이는 존재 할 수 없으며 자기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부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이웃에 대한 형제같은 사랑 안에서 차이를 확립 시킨다. 따라서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칼뱅의 종교 윤리는 성서를 중심한 신앙 윤리이다. 인간 타락 칭의와 성화는 성서를 기초한 그의 교리적 윤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VII. 결 론

지금까지 칼뱅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찰했다. 칼뱅의 모든 윤리사상 즉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부분에 걸쳐 윤리적 기초가 된 것은 성경이다. 칼뱅의 사상은 성경을 근거한 신 중심의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 고찰한 칼뱅의 생애와 윤리적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의 학교 생활이나, 종교 개혁 운동은 성경을 중심한 휴머니스트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몽테귀 대학에서 에라스무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등 유명한 휴머니스트들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종교적 개혁자들의 집단에 속한 휴머니스트 친구의 영향으로 프로테스탄트주의로 전향했다. 1536년 처음 출간된 그의 「기독교 강요(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는 교의 신학의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영감이 되었다. 거듭 증보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서가 되었다. 기독교 강요는 교회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교회의 도덕 생활의 규범을 위한 윤리적 기반이 됨을 살폈다.

제3장에서는 칼뱅의 정치 윤리를 살펴보았다. 그의 정치윤리사상은 신학적 이해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체계의 변형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제네바에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중심한 정치 통치자의 책임과 통치자의 의무와 권위를 주장한다.

모든 권력은 위에서(하나님) 주신것이기 때문에 칼뱅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하며 통치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권을 행사 해야 하며 통치자는 순결하되, 하나님의 의에 어긋날 때는 복종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주장

했다.

칼뱅은 전통적인 정치사상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두가지면을 적절히 변형시켜 윤리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유토피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뱅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에게 유토피아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고 본다.

제4장에서는 칼뱅의 경제관, 빈부론의 일반적 견해, 칼뱅의 빈부론의 경제 윤리를 살펴보았다. 칼뱅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재물을 추구하되 욕심이나 탐심을 가져서는 안되고, 그 재물을 위해서 근면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게 가진자나 많이 가진자도 다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근검 절약 검소하게 살 것을 강조했다. 부자는 그 부요함에 탐심이나 무절제 낭비와 사치 방종을 해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소비를 지향하고 교만이나 허영으로 재산을 남용해서 안되고 빈곤자를 위해 물질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칼뱅의 경제 윤리는 말은 자 즉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윤리적 사명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얻은 재물을 공익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며 사회 봉사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칼뱅의 경제 윤리는 정치적 유토피아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

제5장에서는 칼뱅의 사회윤리 사상을 고찰했다. 칼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 중심주의자이며 인간의 불평등과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혁명적 휴머니스트라 할 수 있다. 인간 소외문제와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자본주의 시초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웃 사랑을 부르짖어 한없는 인간애를 펼치는 윤리를 주장했다. 그후 청교

도 정신은 그 당시 사회 윤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근검, 절약,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하고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문화의 변화, 새로운 생활 양식의 출현, 감각 문화의 발달, 고도의 소비경제, 쾌락과 오락을 즐기는 인간의 삶의 형태로 말미암아 청교도의 정신이 붕괴되고 있다. 쾌락에 관심을 둔 향락주의가 거룩한 청교도 사회 윤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제6장은 칼뱅의 윤리중에 가장 핵심인 종교윤리를 살펴보았다. 칼뱅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상으로 중생할수 있다고 설명한다. 칭의와 성화는 유기적 관계이며 신앙의 이중 열매이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성화는 내안에 성령이 계속적인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칭의를 여는 것이다. 즉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한다. 그 자유는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이다.

칼뱅주의 윤리는 근대 상업주의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칼뱅윤리의 핵심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행동이다. 이 인간애의 윤리적 실천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굳어 버린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곧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역사의 현실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선 행위이다. 반 봉건적 절대주의 체제 밑에서 살았던 퓨리턴에게 사랑의 실천은, 탐심과 낭비와 향락을 조장하는 낡은 상업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무너뜨리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칼뱅주의 윤리는 신중심 윤리(theocentric ethils)요, 그리스도 중심의 윤리(christocentric ehtics) 성경중심의 윤리라 할 수 있다. 신 중심의 윤리를 제창한 사람은 니버(H.Richard Niebuhr)이다. 신중심의 윤리에

는 기독교 윤리의 통전성이 들어있다. 기독교 윤리의 통전성은 궁극적 현실로서의 하나님 본성에 관한 것과 그에게 대한 인간의 적합한 응답에 관한 어떤 공유적 신앙으로 부터 파생된다. 기독교 윤리의 일치성은 신중심의 신앙에 있다.¹⁾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윤리는 인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를 변형시키는 정치적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²⁾

하여튼 칼뱅은 신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중심에서 바른 인간의 삶의 자세를 정립해주었다. 칼뱅의 윤리는 모든 계층의 이익과 가치관에 적합한 새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본다.

1)맹용길. 「제4의 윤리」 (서울:성광문화사, 1983), pp.41-42.

2)위의 책, p.63.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광식, 「신앙에의 초대」 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 김영모, 「현대사회 문제 돈」 서울:한국복지 정책연구소, 1981.
- 김중기, 「신앙과 윤리」 서울:종로서적, 1989.
- 나학진, 「기독교 윤리학 개설」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79.
- 맹용길, 「현대인의 윤리」 서울:기독교문사, 1987.
- ———, 「제4의 윤리」 서울:성광문화사, 1983.
- 신인현, 「빈곤에 도전하는 기독교」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0.
- 심일섭,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서울:신교출판사, 1959.
- 오성춘, 「광야의 식탁 I」 서울:홍성사, 1985.
- 이강천, 「기독교 윤리개설」 부천: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80.
-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Ⅱ」 서울:기독교서회, 1966.
- 이종성, 「칼빈」 서울:총회교육부, 1968.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4.
- 전경연, 「예수의 교훈과 윤리」 서울:향진사, 1974.
- 정인홍, 「서구정치사상사」 서울:박영사, 1976.
- Bieler Andre,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 역, 서울:성광문화사, 1985.
- Brenner Edward, 「정의, 사회질서」 전택부 역, 서울:평민사, 198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외 3인 공역
「기독교강요」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0.
 - Ellul Jacques, 「하나님이나 돈이나」 양명수 역, 서울:대장간, 1991.
 - Gonzales Justo ,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이형기 차종순 역 「
기독교사상사Ⅲ(현대편)」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
국, 1988.
 - Jaroutunian Joseph, 「칼빈의 조직신학해석」 칼빈주의연구원편역,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 McConaghy David, 「금권은 인격의 시험표」 곽안련 역, 서울:대한기독교
서회, 1958.
 - Meeter Hebert, 「칼빈주의」 김진홍,박윤선 공역, 부산:성문사, 1959.
 - Niebuhr, 「기독교윤리학」 김중기역, 서울:대한기독교 출판사,1990.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0.
 - Richard Joseph, 「칼빈의 영성」 칼빈주의 연구원편, 서울:기독교문화
협회, 1988.
 - Whiteny Harold, 「기독교 강요핵심정리」 윤두혁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1997.
 - Willisto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민경배외 3역, 서울:대한기독교서
회, 1976.
-
- Barclay W., 「Ethics In A Pemi ssive Society」 London and Glasgow:
colli ns, Fratana Books, 1971.
 - Bauman E., 「Where Your Treasure In Arlington」 Va:Bau
man Bible Telecasts, 1980.
 - Bioler A.,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 John knox, pres
s, 1964.
 - Calvin J., 「Commentary on the Books of psalms」 Vol. I - V Tra
ns, J ams Anderson,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39.

- Cullman D., 「The state in the New Testmant」 New York:Charles Scribner, 1956.
- Georgia H. Calvin J.,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Abingdin press,1958.
- Lindsay T., 「A History of The Reformaition」 Vol.1 Edinb urgh : Tburgh press, 1975.
- Lindsay T., 「A History of The Reformaition」 Vol.II Edin burgh: T&T. Clurl 38 George street, 1964.
- Kenneth & Latouredde., 「A History of chisionity」 Vol. I , New York:Harper & Row, 1975.
- Parker T. H. L., 「portrait of Calvin」 The Westminster press, 1940.
- Perry R. B., 「Puritan and Democracy」 New York : Vanhuard Press, 1944.
- Stoker H. G., 「Calvin and Ethics in John Calvin」 Contemorary pr ophet, editeb by Jacob T. Hoogstra, 1971.
-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H arcourt Brace, 1926.
- Troeltsch E.,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on churches」 Vol. 2 New York: The Hacmillian, 1959.
- Waddams H., 「An Introduction to Moral Thelolgy」 London:S CM Press, Ltd, 1905.
- Wakefield G. S., 「Puritan Devotion」 New Jersey:Hacillan Publishin g co., 1969.

2.사전 및 간행물

- 강속진. “칼빈의 정치사상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현대적 의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85.

- 김광수. “칼빈의 경제윤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원 1991.
- 김철수. “칼빈의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1.
- 박준서. “구약신앙과 영성”, 신앙과 신학 제5집, 1989.
- 한철하.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칼빈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 1965.
- 이희승편.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관, 1975.
-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14권,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서울: 기독교문사,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Ethical Thought by John Calvin

By : Kim, Sung-teak

Advisor : prof, Moon hyun-sang

Majorin : National Ethic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oday, modern industrial society has been presented several phenomena of moralistic disablement. As a sudden change from agricultural society to industrial society, modern society has many problems like a lack of ethical consciousness, a backward of society norm, a development of individual egoism, a golden mammonism, an awareness of the self-centered, a violence, a climate of making light of human life as well as disorder of a view of value. As a result of these problems, the stability of nation, society and family has been ignored. This cause can be found in the cultural environment which is resulted from a loss of human value and can be seen in a lack of ethical ideology and also an absence of education.

Especially ethical morals plays a big role in which human can be carried on his/her will. If we see the world history, we can know that an effect which ethical norm attained to human life is remarkable. In this thesis, as we study an ethic norm of Calvin, theologian and

religionist, we intend to inspire again ethic consciousness going backward in the modern society and to know how important a religious ethics is in history. We viewed Calvin's ethic norm as a modern stand point separating into politic, economy, society, religion(christian).

Calvin's ethic has greatly affected the pevioid of 'Religious Reformation' then as well as the economic principle of modern capitaliism and ethics, particularly it is got to centers of ethic of the Protestant. Calvin's theology and ethics are centered on the Scriptures and on the God. His studious effort intended to find a natural feature of human being in the Holy God living in the world history. That is, he wanted to give the most imaginative answer to the existent problem of modern people and he wanted to live human's beautiful life. Here we are going to link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and then to catch what the human being is before God, and we are explaining the ethical behavior, too.

Therefore, in the all of Calvin's study, we can find a religious human figure ; a love of human pulled by the God's love. In his politic ethics, theocracy is also included and his view of economics became a founder of capitalism and he discusses economic ethic with linking to justice and love. He insists on philosophy that all of the materials be used for glory of God. With his love of human based on the Scripture, Calvin maintains Utopia economic ethics -As all the people are equal before God, they are not to be an object of pressure. He also insists on a love of neighbor with practicing the equality. His

Puritanism has become a base of society ethics. It come to a big role in the world history and affected ethical life though today it is regarded as that of an old time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alvin is a Christian ethics. We can say that all of these, for example, Christian admiration and sanctification, a freedom of christian, a Holy life, a social life, a life, a life of being disciple, are ethics that whole things are centered on God.

Through this study of Calvin's ethic ideas, we call a modern people's attention to whom has dull ethic consciousness and especially we intend to pursue ethical mission of Christian.